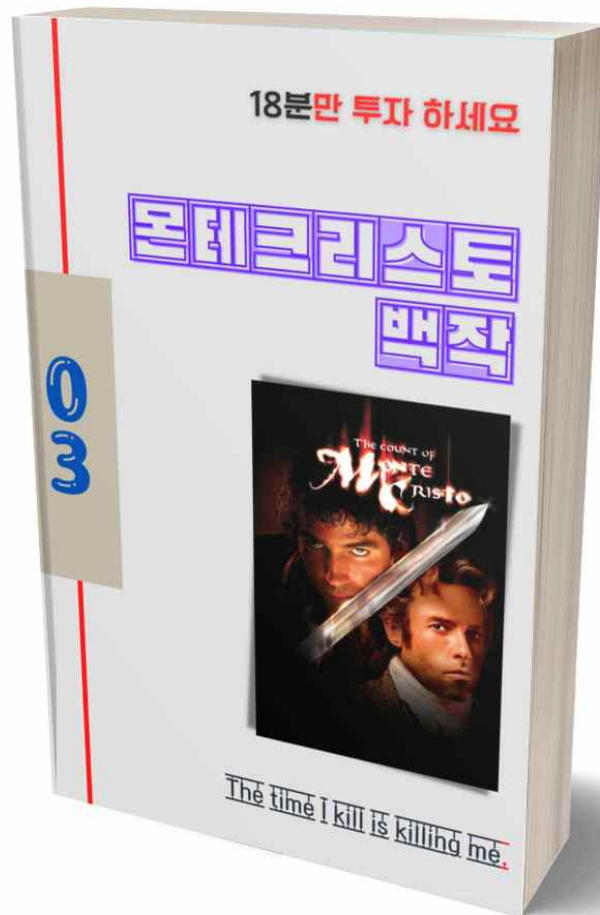


18 minutes is Enough



몬테크리스토 백작 간단 소개



"몬테크리스토 백작(The Count of Monte Cristo)"은 1844년에 출간된 알렉상드르 뒤마의 모험 소설입니다.

이야기는 아름다운 메르세데스와 결혼을 앞둔 젊고 성공한 선원 **에드몽 당테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테스는 질투심 많은 친구 페르난드, 텐그라르, 빌포르에 의해 보나파르트 음모자라는 누명을 쓰고, 샤토 디프 섬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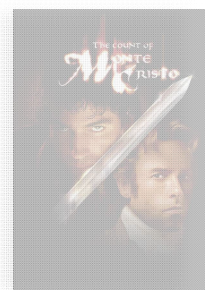
감옥에서 그는 동료 죄수인 아브베 파리아를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고, 몬테 크리스토 섬에 숨겨둔 보물에 대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감옥에서 14년을 보낸 후 탈출에 성공한 그는 섬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고, 몬테 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파리로 돌아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당테스는 먼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옛 친구 카데루스, 당테스를 배신하고 메르세데스와 결혼해 부유한 백작이 된 페르난드, 당테스의 투옥을 이용해 부유한 은행가가 된 텐그라르, 자신의 투옥을 명령한 검사 빌포르에 처절한 복수를 합니다.

당테스는 메르세데스와 재회하고 페르난드와 결혼한 그녀를 용서합니다.

결국 당테스는 복수가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파리를 떠나 노예에서 구해준 진정한 사랑 헤이데와 새로운 삶을 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요약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알렉산드르 뒤마가 1844년에 쓴 고전 소설이다.

이야기는 1815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시작되며, 에드몽 당테스는 파라온 호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청년이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 메르세데스와 약혼한 상태이며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 오면 결혼할 계획였다.

그러나 당테스는 메르세데스를 사랑하고 당테스의 성공을 질투하는 친구 페르난드에게 배신당한다.

피에르 모렐이 주인인 파라온 호에서 1등 항해사로 일하던 당테스를, 나폴레옹과 친분이 있었던 모렐 선주의 부탁으로 엘바 섬에 들른 일을 빌미로, 페르난드는 당테스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지지자로 모함한다. 당테스는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악명 높은 섬 감옥인 샤토 다이프에 수감된다.

그는 몇 년 동안 독방에 갇혀 지내며 서서히 이성을 잃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샤토의 죄수인 아브베 파리아라는 노인을 만난다. 파리아는 감방에 땅굴을 파고 있던 중 우연히 당테스의 감방에 침입하게 된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고, "미친 신부"라고 불리는 파리아는 당테스에게 언어, 과학, 역사 등 많은 것을 가르친다. 스파다 백작이 숨겨놓은 몬테크리스토 섬의 보물 얘기를 말해주고 그것을 찾기 위한 지도를 준다. 병으로 죽은 파리아의 시체 감방에 숨어 바다에 몸을 던져 14년동안의 수감에서 탈옥하는데 성공한다.

수 차례의 시도 끝에 보물을 온전히 손에 넣는데 성공한 당테스, 막대한 재화로 몬테크리스토 섬의 소유권을 차지한 후 전부터 구상해온 밀무역 기지를 조성해 수수께끼의 인물 "선원 신드बाट"로 명성을 쌓게 되고,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백작의 작위를 사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신분을 바꾼 뒤 프랑스로 돌아가 원수들에게 복수를 시작한다.

당테스는 새로 얻은 재산과 지식으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신분을 이어받아 프랑스로 돌아간다. 그는 그의 옛 친구들과 적들에 대한 복수를 하기 시작한다.



그는 고용주였던 피에르 모렐의 해운 회사를 재정적 파탄에서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는 몰래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도록 해준다. 또한 모렐을 체포한 도적단을 설득하여 무사히 풀어주어 모렐의 목숨을 구해준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는 모렐의 딸 발렌타인을 돕는다.

그런 다음 당테스는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는 자신을 모함한 자 중 한 명인 카데루스이다. 당테스는 자기 오바버를 끝까지 보살펴준 댕가로 다이아몬드를 주는데, 더 큰 탐욕으로 당테스 집을 털려다, 공범인 감옥 동료 베네데토에 의해 살해된다.

그리고 당테스는 부유한 은행가가 된 텐그라르를 목표로 한다. 당테스의 계략에 의해 파산을 하고 밀수업자들에 납치되어 당국에 의해 구출되어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경제적 파탄 상태가 되어버렸다. 최후엔 부유한 터키인의 하인으로 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당테스는 백작이자 장군이 된 페르난드에게 초점을 맞춘다. 페르난드는 메르세데스와 결혼하여 알베르라는 아들을 두고 있다.

에스파냐 전쟁에서 자신의 은사와 성을 적군에게 팔아 남겼던 배신 행위가 폭로되고, 자신이 당테스에게 거짓 혐의 씌웠던 사실이 아내 메르세데스에 밝혀진 뒤 아내와 아들로부터 버림받는다. 당테스와의 파리 외진곳에서 권총 결투에서 죽게된다.

빌포르는 당테스 독약에 실수로 아들을 잃게 되고, 세상 명성을 잃은 데다 ,혼외자식 살해혐의도 발각되고 결국 검사직을 잃게 된다. 결국 아내는 정신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죽게된다

결국 당테스는 노예상태에서 구출한 헤이데와 함께 프랑스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의 재산을 그의 충실한 하인인 베르투치오와 막시밀리안 모렐에게 맡긴다. 당테스는 또한 막시밀리안을 그의 진정한 사랑인 발렌타인 드 빌포르와 재회시키는 것을 돕는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주요 등장인물



에드몽 당테스 - 이 이야기의 주인공 당테스는 그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갇힌 젊은 선원이다. 그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부유하고 수수께끼 같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

페르난드 - 당테스의 옛 친구이자 메르세데스의 애정 상대이며, 페르난드는 당테스를 배신하고 누명까지 씌우는 일을 돕는다. 그는 나중에 백작과 장군이 된다

메르세데스 - 당테스의 전 약혼자인 메르세데스는 당테스에 대한 충성심과 페르난드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랑스럽고 독립적인 여성이다. 당테스가 감옥에 갇힌 후, 그녀는 페르난드와 결혼하여 아들 알버트를 키운다.

페르난드 - 페르난드 남작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부유하고 강력한 인물입니다. 그는 에드몽의 성공을 질투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를 감옥에 가두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딸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빌포르 - 부패하고 야심찬 검사, 빌פור는 당테스에 반대하는 주요 음모자들 중 한 명이다. 그는 또한 당테스에 의해 폭로된 일련의 다른 범죄와 은폐에 책임이 있다.

막시밀리안 모렐 - 소설 초반에 아버지 피에르 모렐의 해운 회사에서 일하는 선원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용맹함과 충성심으로 유명하며 당테스와 친구가 된다. 또한 빌포르의 딸인 발렌타인 드 빌포르와 사랑에 빠졌다.

아브베 파리아 - 샤토 디프성에 있는 당테스의 동료 죄수, 파리아는 당테스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는 현명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며, "미친 신부"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그는 당테스에게 몬테크리스토에 있는 보물에 대해 말하고 복수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준다.

헤이데 - 오스만 제국의 노예 생활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에게 구출된 젊은 여성이다. 당테스는 파리를 떠나 하이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18분만 투자 하세요

몬테크리스토 백작

03



The time I kill is killing me.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장인물 관계도



당테스와 메르세데스: 둘은 당테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결혼을 계획했던 어린 시절의 연인이었다. 당테스가 감옥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의 관계는 경색된다. 메르세데스는 당테스와 페르난드에 사이에서 고민한다.

당테스와 페르난드: 페르난드는 당테스의 전 친구이자 메르세데스의 사랑의 라이벌이다. 그는 당테스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돕는다.

당테스와 아브베 파리아: 아브베 파리아는 샤토 디프성에 있는 당테스의 동료 죄수이며, 당테스의 멘토이자 친구가 된다. 그는 “미친 신부”라 불리는 학자이다. 당테스에게 스파다 보물에 대한 이야기와 보물이 숨겨져 있는 몬테 크리스토 섬의 위치를 알려주고, 복수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알려준다.

당테스와 빌포르: 빌פור는 당테스에 반대하는 주요 공모자 중 한 명인 부패하고 야심 찬 검사입니다. 당테스는 빌포르에게 복수를 하고 과거의 범죄를 폭로하여 그의 몰락을 초래한다.

당테스와 막시밀리안 모렐: 막시밀리안 모렐은 당테스와 친구가 되고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되는 젊고 이상주의적인 선원이다. 막시밀리안은 빌포르의 딸 발렌티나와 사랑에 빠졌고, 당테스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도왔다.

메르세데스와 페르난드: 메르세데스와 페르난드는 결혼했고 아들 알베르트가 있다.

빌포르와 그의 가족: 빌포르와 아내 헬로이즈는 부패하고 부도덕하며 여러 범죄를 은폐한다. 빌포르의 딸 발렌타인은 선량하고 순수한 인물이다. 그녀는 몬테 크리스토 백작의 제자가 된 젊은 선원 막시밀리안 모렐과 사랑에 빠집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복수혈전



페르난드에대한 복수 :

에드몽은 페르난드가 프랑스 군대를 적에게 팔아넘긴 반역자임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페르난드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모두 잃었다.

에드몽은 페르난드가 자신의 아들인 알베르와 결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 결투에서 페르난드는 아들에게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에드몽은 알버트에게 페르난드가 조국을 배신하고 동지들을 팔아넘긴 편지를 당국에 보냈던 것을 보여주었다.

결국 페르난드는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외롭고 치욕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텐그라르에대한 복수:

당테스는 특정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여 텐그라르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만든다.

텐그라르는 이탈리아로 가족과 함께 출장중에 당테스가 고용한 밀수꾼들에게 납치당해서 외딴 섬으로 끌려갔고, 몸값이 지불될 때까지 포로로 잡혀 있었다. 포로 생활의 조건은 가혹했고, 결국 당국에 의해 구출되어 프랑스로 돌아갔지만, 그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고 막대한 빚과 자산은 거의 남지 않았다. 최후엔 콘스탄티노플의 부유한 터키인 남자의 하인으로 일하게 된다

빌포르에대한 복수:

당테스는 , 빌포르가 내연녀와 혼외자식을 낳았고 그 아이를 산 채로 묻으려 했다는 비밀을 알아내고 협박한다. 혼외자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아내 헬로이스는 미쳐서 정신병원에 갇히고 결국 거기서 죽는다.

당테스는 복수하려고 빌포르에게 독약을 남겼지만, 일이 꼬여 빌포르의 어린 아들 에두아르가 그 독약을 먹고 죽고 만다. 이후 빌פור는 재산도 가족도 다 잃고 절망에 빠진다. 그는 검사직을 사임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파리를 떠나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빌포르의 순진한 딸 발렌타인은 에드몽의 도움으로 잔인한 계모와 아버지의 계약에서 벗어나 막시밀리안과 함께 행복을 찾게 된다.

